



양돈장의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고려 요소 및 지표

1. 머리말

돼지고기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를 통한 사육규모의 확대와 분뇨처리의 규제강화에 따른 분뇨처리시간의 증대 등으로 상시 고용인력을 채용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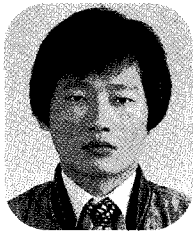
국내 양돈장의 대부분은 번식+비육 일관경영 사육체계로 돼지를 사육하는 관계로 모든 120두이상의 사육농장에서는 부부노동력과 상시 고용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고용인력이 투입되는 작업장은 사육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차적으로 분뇨처리장과 육성 비육사에 투입되고 있으며, 모든 150두 이상

의 농장에서는 인공수정기술 보유, 전산화 작업 등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고용하여 임신사은 물론, 분만사까지 투입되고 있다.

한편, 양돈장이 규모화되면서 모든 관리를 경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농장과 고용인 위주로 운영하는 농장간에 생산성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양돈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고용인에게 고정급의 임금에 농장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양돈장의 성과급제 운영에 따른 관련 요소 및 지표 설정을 하는데 사육농가의 의사결정편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금찬 연구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2. 성과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준 요소 및 지표

양돈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절감을 도모하거나, 사육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양돈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거나, 돼지의 최종산물인 비육돈의 출하두수를 높여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돈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절감에 따른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성과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준요소 및 지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 양돈장의 철저한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현재 양돈장에서 상시 사용하고 있는 고용인의 능력은 자격증 소유자, 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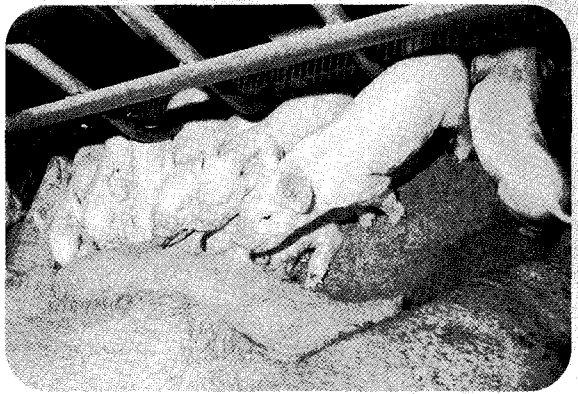
관련 학과 졸업, 종돈장 등의 실무 경력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돈장마다 시설조건과 모돈의 관리 상태

등의 차이로 고용인 능력에 의해 양돈장의 성적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농장들이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 고용인의 능력별 성과급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돈장의 수익을 최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록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번식 모돈의 성적에 의한 성과급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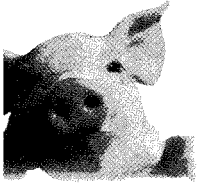
양돈장의 최종산물인 비육돈 출하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유두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양돈장의 최종산물인 비육돈 출하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유두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유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자수를 높여야 하고, 산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돈의 이유일령 단축, 모돈 이용산차비율의 적정화, 적기수정, 쾌적한 사육환경, 종돈의 통일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유자돈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돈의 회전수 증대가 중요하다. 모돈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름철 고온기의 환경관리, 적기종부를 위한 인공수정의 도입, 임신단계별 체평점 관리, 이용산차비율의 적정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유두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산자수가 1% 증가하면 이유두수는 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유두수가 1% 증가하면 소득은 44% 증가하는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유두수

증대에 따른 규모이익 효과에 의해 가축비와 감가상각비, 노력비 등의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주는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고용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번식모돈의 농장 기준성적을 설정하여 재투자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가지고 성과급제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당 이유두수를 1두 증대시마다 10,000원을 고용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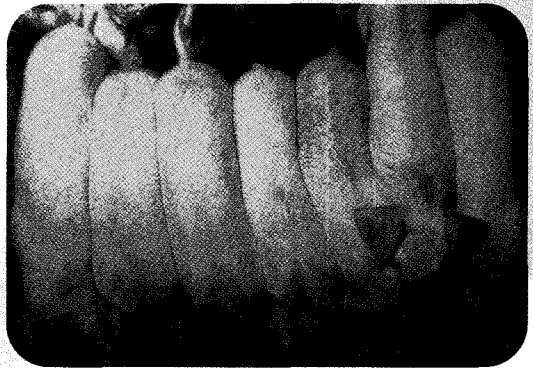
다. 사료요구율 개선에 따른 성과급제

돼지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양돈장이 규모화되면서 모든 관리를 경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농장과 고용인 위주로 운영하는 농장간에 생산성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양돈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고용인에게 고정급의 임금에 농장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춘 사료 급여, 암·수 분

리사육, 쾌적한 환경조건 등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육성돈 사료 위주의 무제한 급여체계에서 사료요구율이 3.3수준임을 고려할 때 농장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료요구율 목표치 설정시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비율을 젓먹이 30%, 육성돈 50%, 비육돈



▲ 돼지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료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비율로 급여할 때 출하 체중 100kg수준은 2,965, 105kg은 3,050, 110kg은 3,150 수준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폐사율 개선에 따른 성과급제

국내 양돈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돈 폐사율은 10%

이상, 비육돈은 2~3%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양돈장의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는 폐사율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분만을 하거나, 무간호 분만시에는 분만틀의 압사방지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고, 자돈은 온·습도의 환경조건에 민감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모돈으로부터 전가되는 질병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격리조기이유를 실시하고,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철저한 출입통제를 통한 전염성 질병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이와같은 조건을 실행하면서 비육돈의 폐사율 목표치를 10~15% 수준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3. 맺는말

구제역 발생이후 돼지고기의 수출중단과 사육두수의 증대로 인하여 산지가격의 하락으로 사육농가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다. 또한, 세계사료곡물가격과 환율 상승

번식모돈의 농장 기준성적을 설정하여 재투자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가지고 성과급제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당 이유두수를 1두 중대시마다 10,000원을 고용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등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여 양돈장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양돈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양돈장의 경영을 고용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농장일수록 경영주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 비하여 생산성이 정체 내지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양돈장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양돈장의



▲ 세계 사료곡물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여 양돈장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양돈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산 및 판매는 물론 생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기록 관리토록 하고, 번식 모돈의 성적, 사료요구율의 개선, 폐사율의 개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성과급제를 도입 운영한다면 보다 더 많이 양돈장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돈**